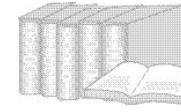


북

Books

신화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준다



새책

'쪼개진 몸', 영화와 뮤지컬로 만들어진 '헤드윅'에는 남녀의 두 몸이 한 몸으로 붙어있었다는 신화가 등장한다. 제우스가 잘 삶은 달걀을 머리카락으로 자르듯 인간의 몸을 갈라 놓아 남자와 여자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화는 현대인의 상상력을 자극해 수많은 영웅과 문화를 만들어낸다.

성공회대학교 문대학원 김용호 교수의 신간 '신화 이야기를 창조하다' '신화 전사를 만들다'는 인류를 관통하는 중요 신화를 다루고 있다.

신화, 전사를 만들다 · 신화, 이야기를 창조하다

김용호 지음

▲인류 공통의 시선=우리는 과거의 무슨 무슨 왕조의 왕이 신의 도움을 받아 알에서 태어났다는식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영웅들은 신과 인간의 사랑을 통해 탄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도자를 갈구하는 인간의 열망에 신이 왕이나 영웅으로 환생하기도 한다.



이들 신화는 마치 한 사람의 이야기꾼이 지어낸 듯 비슷하다. 밭간반도, 한반도, 인도, 중동, 북유럽 등지에서 흘러내려온 신화들이 이처럼 유사한 것은 인류가 같은 눈으로 천지창조를 관찰했기 때문이다.

'신화 이야기를 창조하다'는 이처럼 유사한 세계 각국과 민족의 신화를 들려준다.

발간 반도의 그리스·로마신화, 한반도의 한·중·일신화, 인도의 인도신화, 중동의 히브리신화, 메소포타미아신화는 신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간 이야기이다. 이들 신화는 지역과 시대는 다르지만, 먼 거리와 오랜 시간을 관통하는 공통의 시선이 들어있다.

가령 그리스·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왕의 귀는 당나귀 귀' 신화는 국내에도 존재한다. 9세기 통일신라 경문왕은 귀가 갑자기 당나귀처럼 자랐다.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드는 장인은 대숲에서 딱 한번 이를 고백한다. 이후 바람이 불면 대숲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외쳐댔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가치를 규정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지역과 시대를 뛰어넘어 비슷한 신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또 인간의 운명, 사건을 움직이는 힘(이치)과 상징들도 비슷한 시선으로 보았다.

〈휴머니스트·1만6천원〉

▲신화의 주인공 전사들=전사는 능력을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꿈을 이룬 의지의 인간일까. '신화 전사를 만들다'는 신화 속 주인공들이 이상을 위해 몸을 던진 이야기다.

우리가 잘 아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신화 속에도 인간 의지가 전사를 만드는 과정이 잘 담겨 있다. 평강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미리 점쳐기라도 하듯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와 결혼해 남편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삶이라는 전장에서 쓰러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남편을 전사로 만들었다.

전사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전사가 가진 괴력이 인간의 수준을 넘고, 웬만한 신도 감당 못할 정도라는 데 있다. 전사는 거침없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장애로 생각하는 것을 전사는 자기를 위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전사는 하늘에서 받은 모든 힘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남편을 전사로 만들었다.

저자는 강조하는 전사의 또 다른 덕목은 무엇을



에로스와 프시케



▲권력의 법칙=모략과 암투가 횡행하는 세계에서 살아남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물들, 권력의 희생자나 패배자가 되었던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권력의 본질'을 분석했다. 저자 로버트 그린은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냉정한 권력의 세계를 파헤쳐,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이면의 진실을 보여준다.

〈옹진지식하우스·2만8천원〉



▲내 인생을 바꾼 선생님=독일의 과학자인 에른스트 페터 피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선생님의 가르침 60개를 소개하는 에세이. 60번째 생일을 맞은 저자는 15살 때 만난 선생님의 조언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를 깨닫고 소박하면서도 지혜로운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한다.

〈Y브릭로드·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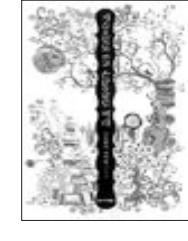
▲오두막=윌리엄 폴 영의 소설.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었을 법한 '왜 신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고 있는 소설이다. 막내딸을 끌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속에 잠자 지내던 막은 편지를 받고 고민 끝에 오두막으로 향한다.

〈세계사·1만2천800원〉



▲지식채널 건강 01=지난해 6월 방송된 EBS 다큐프라임-김기현 내용을 토대로 건강 정보를 모아 담았다. 우리가 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의약광고 주의사항, 의료사고 대처법, 자신에게 맞는 병원 선택 등 한국 상황에 맞춘 정보와 사례를 소개했다. 〈지식채널·1만2천800원〉

〈시대의창·1만4천500원〉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언론사 문화부 기자 이유리 씨와 민주노동당 기획위원 등을 지낸 임승수 씨가 함께 쓴 예술총서. 페미니즘 미술의 선도자 젠탈레스키, 춤술살인의 시사만평가 윌리엄 호가스, 혁명을 노래했던 빅토르 하라, 그 래피터 예술가 뱅크시 등 세상을 바꾼 예술가들을 다뤘다.

〈시대의창·1만4천500원〉



▲기슴으로 쓰고 손글로 써라=시인 안도현의 시 창작 강의론. 시인이 문학 소년이 된 것은 1978년 학원 문학상을 받으면서부터. 그는 그 시절 쓴 시를 공개하면서 자신이 골랐던 시야에 얹힌 사연을 말한다. '비유·시정과 서사의 결합' 등 시 창작과 감상 방법에 관한 저자 나름의 생각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한겨레출판·1만2천원〉

〈책보사·1만6천500원〉



▲더 나은 삶을 위한 철학자들의 제안=철학 부재의 사회, 21세기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이다. 저자 외제니 베글르리는 플라톤에서 데카르트, 칸트, 니체, 그리고 프로이트를 거쳐 메를 풀티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유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감미로운 사유와 행동지침을 이끌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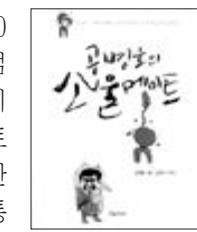
〈책보사·1만6천500원〉

〈신라인의 이야기=천년 왕조를 이룩한 신라의 영웅을 그들의 눈부신 질주 그리고 극적인 멸망에 대한 스핀어를 하고 드라마틱한 역사가 펼쳐진다. 저자 서영교씨는 기존의 딱딱한 국사책을 거부한다. 흥미로운 역사기술을 위해 '삼국사기'·'삼국유사'는 물론 '일본서기'·'구당서'·'책부원' 귀' 같은 사료까지 총동원했다. 〈서림·1만2천원〉

〈책보사·1만6천500원〉

'공병호의 소울메이트'

젊음 위한 자기계발서



지난 10여 년간 젊은이들에게 소울메이트(영혼 동반자)로서 통찰력 담긴 삶의 전략을 전하고 있는 공병호 박사. 국내 최고 아트디렉터 임현우 교수, 그들이 둘째 겁 많고 서툰 젊음을 위한 자기계발서 '공병호의 소울메이트'를 냈다.

책은 200명의 젊은이들로부터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조사한 후, 그 중에서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인생의 미스터리 64가지를 풀어낸다.

세상에 나가게 될 젊은이들이 꿈과 권리와 잊지 않기를,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치열하게 실천(행동)해 성공하기를 바리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흐름출판·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메이저리그 경영학

제프 앵거스 지음 · 황희창 옮김



"경영 잘하려면 야구선수처럼 행동하라"

를 눈치채지 못했거나, 알고도 자만했을 때 분명하다. 제프 앵거스는 '야구에 숨겨진 경영의 진수'를 이자리로 제시하는 '경영학'은 "경영자들은 야구 선수들 성공할 능력을 충분히 갖췄으면서도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다. 때로는 치명적인 성격이, 때로는 고집스런 신념이 발목을 잡는다. (김광현은 아직 어리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AP통신의 유명 야구 칼럼니스트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제프는 이런 경우 ▲감정을 통제하고 ▲자기 를 둘러싼 상황은 항상 변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존 데이터도 다시 분석하는 자기 관리에 나서라고 조언한다. 자기관리는 관리자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뿐 아니라 작업환경이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때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책은 베이브 루스, 배리 본즈 같은 유명 선수와 구단 운영 사례를 들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에서 뽑은 60년생 생생한 경영 비법을 소개한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경영을 잘하려면 마치 프로 야구 선수처럼 행동하라"이다. 경영 모델은 야구장에서처럼 4개의 베이스로 나타난다. 성공이라는 흡

베이스를 무사히 밟아려면 1루에서부터 순서대로 움직여야 한다.

제프는 경영의 핵심요소인 '운영관리'를 야구의 1루에 빗대면서 차례로 2루 '인력관리', 3루 '자기 관리', 마지막 험베이스 '변화관리'로 설명한다. 야구책으로 손색이 없다. 〈도서출판 부기·1만3천원〉

/김주경 경제부장 jinnews@kwangju.co.kr

국민공인증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금 매물 중개 전문)

공시 지가 2억 매매가 1억 2천 만원

▶ 삼업지역 130P 삼각동

공시 지가 1억 7천 매매가 1억 4천 5백 만원

▶ 대지 180P 복구 두암동 한옥

공시 지가+건물과표 12억 5천 매매가 7억 5천

▶ 45m 도로 절 목욕탕 및 복합상가+주택

복구 대 220P 건 400P

분양가 8억 아파트 130세대 상가 매가 2억 5천

▶ 35m 도로 절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적합

공시 지가+건물과표 4억 6천 매매가 3억 5천

▶ 현자 한의원 경영 중 대 130P 건 230P

공시 지가+건물과표 6억 5천 매매가 4억 8천

▶ 대 100P 건 300P

상성 지 역별 아파트 95P 공시지가 3억 5천 매매가 2억 4천

▶ 30m 도로 절

감정가 3억 8천 매매가 2억

▶ 대 200P 건 450P

▶ 보 8억 월 2350만원 을 13억 포함

화순주유소급여

▶ 대 600P 세시시밀 카센터 주유기 12대

▶ 매 12억 월 6억 포함

화순 퀸 티, 요 애원, 별장 부지

▶ 9500P 현재 홍토방 청고관리실

▶ 주택 조경수 식재 딱 45천

당양 임 아목장, 별장

▶ 10000P 4억 7천

▶ 공시지가 이하 금 매물 접수 환영

대승공인증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상무랜드 공인증개사

T: 383-5221 H: 011-608-5221

(구 상무대 정문)

▶ 대 600P 건 250P

▶ 보증금 1억 7천 200만원 제 855억

▶ 대 185P 건 210P

▶ 보증금 1억 7천 200만원 제 844억

▶ 대 120P 건 200P

▶ 보증금 1억 7천 200만원 제 855억

▶ 대 400P 건 250P